

전주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확대

운영 예산 2억 3000만원 확보... 지난해 객사 앞 충경로에서 1차례 진행 올해 8차례 운영 계획

전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을 위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 첫 실험으로 객사 앞 충경로에서 1차례 선보인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8차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자동차에게 내어준 전주 시내 중심도로를 도로의 원주인인 시민들에게 제공해 가장 인간적인 도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실험으로, 지난해 첫 실험에서는 차가 사라진 폭 25m, 길이 600m의 도로 위에서는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스피치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원광대학교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봉황 스피치 경진대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피치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드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실험으로 객사 앞에서 다과교 사거리까지 총경로 600m 구간 양방향 차선을 전면통제하고, 자동차가 접경했던 차도를 사람과 문화로 가득 채우는 '객사 앞길 차 없는 사람의 거리(부제 전주본색)'를 진행했다.

사업 후 인근상인 100명과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차량통제와 문화행사, 보행 공간 확보, 상가배

출, 지역 이미지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량통제에 대해 대해서는 전체의 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은 30%, 불만족은 15%로 각각 응답했다.

또 문화행사에 대한 설문에서는 만족 47%와 보통 53%로 집계됐다.

시는 앞으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행사가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영양업 차량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 확보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주의 상징거리이자 중심도로인 충경로 등의 차량 통행을 제한해 보행자가 편안하게 도심 속에서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다"면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를 통해 주변 상권 및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관광객들도 찾는 전주의 대표 문화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정수장학회 장학금 거부키로

'국민들 지탄 받고 있는데 학생들 성장에 악영향'

전라북도교육청이 정수장학회에서 주는 학생 장학금을 거부하기로 했다.

19일 김승환 교육감은 "정수장학회의 고등학생 장학금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거부는 삼성그룹에서 방향을 맞아 진행되는 학생 교육지원 사업인 '드림 클래스 장학캠프' 거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정수장학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해마다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2~3년)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추천 요청을 했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올해에는 5명(계속자 2명, 신규자 3명)의 학생이 대상이었고 선정되면 개인당 연 20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김 교육감이 거부하면서 계속자 2명만 장학금을 받게 됐다.

김 교육감은 "계속자의 경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는 없다"라며 "그러나 신규자 3명은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뤄져 왔던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올해 거부한 것은 김 교육감이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확대기부회의에서 과업부고고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정수장학회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보고를 받은 안보위원 교육감으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의 성장에 되려 해가 되는 것은 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정수장학회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이 성장해 이 장학금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지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지 판단했지만, 전북 교육청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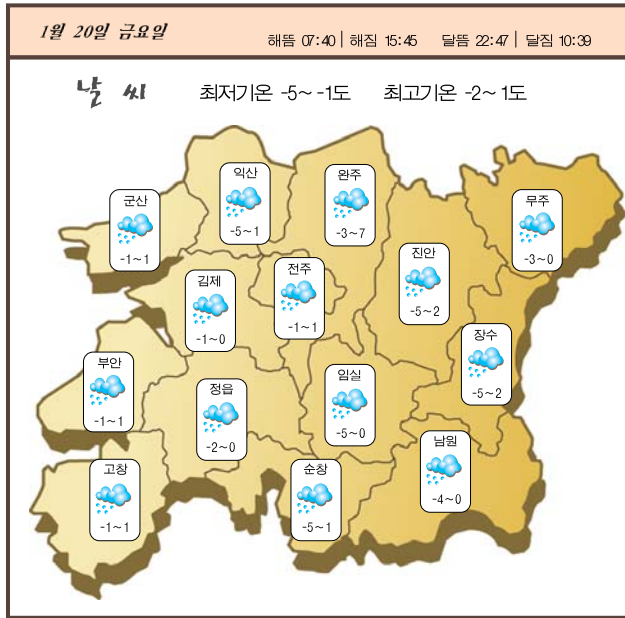
2017년 도내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8일 2017년 유·초·중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합격자 명단 본사 홈페이지(www.jmael.com) 참조>

학교급별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2명, 초등 교감 4명, 초등 교사 28명, 중등 교사 20명으로 총 54명이다.

이번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에는 모두 108명이 지원,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12월 6일 원서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이달 12일까지 다단계 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정해은기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초등성장평가제 현장 적용 실태조사

98%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내 초등교사들은 초등 성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가방법 이해 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도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용석)가 지난해 중순 도내 초등교사 1,081명을 대상으로 초등성장평가제 현장 적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8%(1,059명)가 성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성장평가제 유형으로는 81.3%(844명)가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제식 평가 유지와 수행평가 강화 9.8%(102명) 일제식 평가만 폐지 6.6%(69명) △기타 2.2%(23명) 등이다.

성장평가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중한 업무 2가지를 꼽은 교사들이 가장 많았다. 또 학부모 인식개선도 숙제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방법 이해 부족 19.1%(207명) △업무 과중 18.6%(201명) △학부모 인식개선 부족 12%(130명) △나이스와의 이원화 11.1%(120명) △현행평가, 선별제도의 불일치 10%(19명) △학생수 과다 8.3%(90명) △평가결과 통지방법의 혼란 8.2%(89명)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 6.6%(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2017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추진

전주시는 도로개설과 공동주택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공간이 변화된 지역을 반영하는 '2017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항공측량 기술을 활용해 지상의 위치와 지형, 지명, 건물,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및 색상 등으로 표시해 컴퓨터에서 처리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전자지형도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환경개선 및

도로개설 공동주택 신축이 이루어진 원도심 지역과 만성지구·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신도시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비 50:50 매칭사업 협약 체결을 통해 총 3억원 사업비를 투입, 연말까지 60도엽(15개)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다함께 열거하는 으뜸도시 전주

전주 으뜸상품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완주 으뜸상품권과 함께 행복한 '설날'

우리 이웃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완주 으뜸상품권!

완주 으뜸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보 으뜸상품권으로 지난 2015년 상품권 제작을 시작으로 농협은행 전주완주신도시지부 등 관내 12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00여개 가맹점을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완주 으뜸상품권이 우리 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5% off

완주군 내 소재한 모든 농협에서 액면금액의 5%를 할인 판매

으뜸상품권 사용자 | 유통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으뜸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으뜸상품권 구매처 | 군내 지역농협

문의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290.2402) 및 읍면사무소